



CHRISTIAN FRIENDS OF KOREA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Bringing Hope and Healing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in the Name of Christ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4

### 인내와 소망: 하이디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

저희는 이번 가을에 다시 북한을 방문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시기 보다 조금 늦은 것입니다. 올해 6월에 북한을 떠나기 전, 저희는 북한 상대방과 CFK 개조공사팀과 의료팀이 8월 말에 방북할 것 그리고 올해 초 북한으로 보낸 3,500개의 정수 필터 양동이를 분배할 것에 대해 논의하고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초, 저희는 북한으로부터 방북 날짜를 크게 바꾸어 달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그 후 국제 팀멤버들과 북한 사이에서 수많은 조정 끝에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방북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조정된 일정에 따라 위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일정으로 인해 저희는 몇몇 팀 멤버를 대표단에서 뺄 수 밖에 없었는데, 당연하게도, 조정된 날짜가 그들의 스케줄에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6월에 처음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어떤 새로운 참가자도 참가자 목록에 더해질 수 없습니다.) 저희는 11월에 다시 북한에 돌아가 올해의 마지막 확인 방북 사역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가을 방북 일정이 예상치 못하게 변경된 것 외에도, 저희는 계속해서 다른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는 보낸 물자들의 도착 확인, 의료 훈련, 개조 작업의 완료, 그리고 환자들 면담 및 치료 등을 하기 위해 방북 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 깊게 짠 계획일지라도 종종 저희는 그것을 수정하고 또 수정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저희는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그의 공급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제, 진단 장비 및 자재들을 포함한 10개 컨테이너 분량의 운송 및 두 번의 항공운송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CFK의 대표, 하이디 린튼이 확인 방북 사역 기간에 영양소의 책임자와 함께 있는 모습.

극심하게 높은 레벨의 제재사항들이 모든 면에서(규제, 물자 조달, 송금, 운송, 관세, 물품의 통관 수속, 팀원들의 방북 승인 등) 요구됨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CFK 사무실에서의 일반 업무의 양도 매우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UN 1718 대북 제재 위원회 예외조항에 대한 또다른 신청서(28페이지에 이르는)를 올해 초 여름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승인을 8월 8일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 승인은 사역에 필요한 수 천개의 물품에 적용되지만 단 6개월 동안만 유효하므로, 저희는 다가오는 몇 개월 동안 북한으로 물자들을 수송하고 조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CFK의 대표 하이디 린튼은 영양소의 책임자와 함께 이해 당사자들과 많은 물품들에 대한 이메일과 전화를 주고받으며, 사진들을 보내고, 기술적 묘사 및 긴 설명들을 하느라 벌써 몇 주 또는 몇 달이라는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확인 방문 시기 동안, 일반 계획들 및 수송 물품들의 정리 업무뿐만 아니라, 거래가 완료되고 물품들이 수송되며 통관 수속을 마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송금

서비스의 심각한 지체 및 국제 송금에 복잡한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는 수송 담당자들 및 다양한 파트너들(은행가들, 변호사들, 회계사들, 상업 공급자들, 그리고 현물 후원자 분들- 여러분들은 당신이 누군지 아시죠!)에 대해 저희와 함께 동역함으로써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 주시는 것에 대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실 때에 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직면한 모든 어려움들과 추가적인 시간 소모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사역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여름 동안 외교적 사안에 어떤 진전의 기미가 있는지를 살피며 기다리고 있었던 한편,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가뭄, 지역적 홍수, 태풍, 대북 제재 압박의 영향, 식량의 부족, 매일의 어려움들 및 생존의 위협 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제재의 압박들은 매우 극심해 보였으며, 반대 세력도 매우 강해 보였습니다. 그로 인한 지연 및 어려움, 그리고 고통의 목적을 찾아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의 믿음과 인내는 시험을 받고 어떤 때에는 극한점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가지게 하며, 그는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저버리시는 이가 아니라는 그의 약속(신명기 31:6)과 오직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는 말씀(고린도전서 10:13)을 상기하게 합니다.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기대어 진 짐을 그분께 내려놓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그가 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를 기쁘시게 하기까지 갈 길을 다 갈 것이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저희들 중 북한을 방문하는 봉사자들에게 사역은 고된 짐이기도 하지만, 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며 그곳에 거하고 우리 사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짐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매우 커서 저희는 종종 그 가파른 깊이와 심각함에 완전히 압도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축복임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하는 경험은 사역의 길고 어려운 날들을 더 의미있고 귀중하게 만들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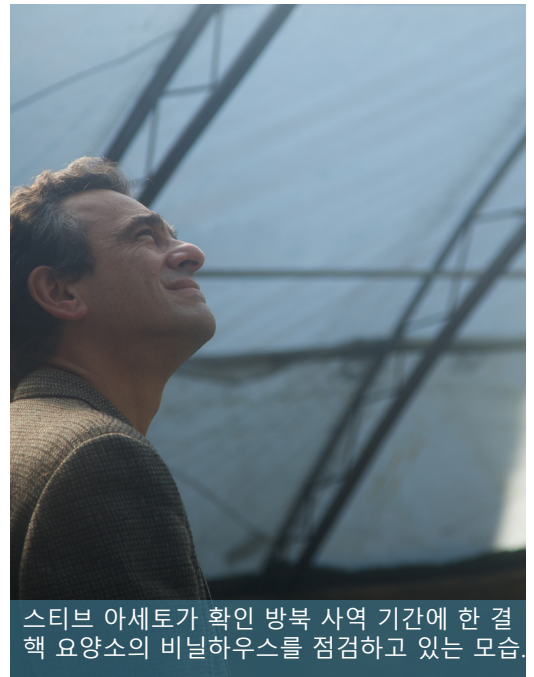


한 결핵 요양소에서 CFK의 직원들이 환자와 함께 있는 모습.

### 은퇴하는 임원, 스티브 아세토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약 25년 전, 아주 특별한 5명의 남성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요건 들 및 법적 문서들의 원본을 만든 것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애쉬빌의 한 변호사인 스티브 아세토였는데, 그는 CFK와 북한 주민들의 깊은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CFK를 향해 세우신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스티브는 CFK가 견고하게 창립되도록 도왔고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실한 기도와 현명한 조언으로 CFK가 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중요한 일들을 후원해주었습니다. 스티브는 큰 믿음의 사람이자 현실성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깊은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의 지혜롭고 지속적인 지도로 CFK는 큰 도움을 받아왔으며 그의 반어적인 유머감각으로 즐거웠습니다.

수 년 동안, 그는 북한을 7번 방문하였으며 많은 북한 당국자 대표단들이 노스 캐롤라이나 주 서부를 방문하였을 때 하나님의 종된 마음을 실천하며 섬겨주었고, 모든 이들, 특히 지구의 매우 끝에 있는 이들에게 까지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저희는 스티브의 믿음과 섬김, 그리고 그의 봉사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가 CFK의 임원진에서 은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에게 풍족한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스티브와 그의 가족들을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스티브 아세토가 확인 방북 사역 기간에 한 결핵 요양소의 비닐하우스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 소리 없는 영웅들을 만나다

저희가 북한에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가족을 만들어 주신 특별한 분들의 많은 이야기들 중 몇몇 스토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직접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들의 특별한 방법으로 신실하게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 작은 친구들과 따뜻한 안부들을 보내기



바바라 멘코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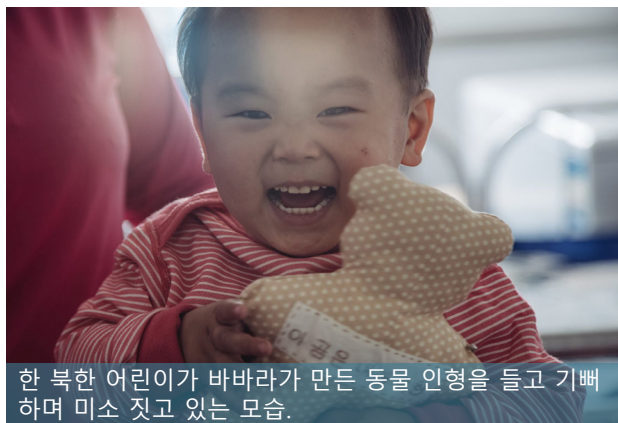
수년간, CFK는 셀 수없이 많은 수공예품들을 다양한 후원자분들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이는 사랑스럽게 손바느질 되어있거나 손뜨개질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따뜻한 모자, 스카프, 담요 등은 환자들과 의사들을 북한의 혹한의 겨울날씨에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사각형 담요 키트는 영양소 환자들에게 제공되어 회복을 돕기 위한 레크레이션 시간에 사용됩니다. 저희는 특별히 많은 수공예 공인 중 수년 간 저희에게 니트와 수공예품들을 후원해 주신 "바바라 멘코스키"를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는 공예품들을 "작은 친구들과 따뜻한 안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소녀시절부터 손뜨개질과 바느질을 해왔습니다. 그녀가 자라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선교사들의 이야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특히 외딴곳에 있는 고아들에게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컴패션 인터네셔널(Compassion International)을 통해 어린이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온라인에서 리서칭을 하던 중 CFK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그녀는 CFK에 전화를 걸었고, 인상적인 전화 대화 후 그녀는 매우 특별한 CFK 가족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북한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디오를 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한국 전쟁 고아들에 대한 이미지와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는데, 오래된 흑백사진에서 매우 작고 마른 아이들이 눈 위에서 맨발 또는 큰 구멍이 있거나 해진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매우 춥고, 버려진 것 같았으며, 매우 슬퍼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만든 아름다운 퀼트, 섬세한 병어리 장갑, 따뜻한 양말, 양증맞은 작은 인형들은 언제나 방을 기쁨으로 밝게 만듭니다. 그녀는 재봉틀을 가지고 있지만 종종 손으로 바느질을 하는데, 이는 추가적인 시간을 들여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활이 어떨까 하고 상상해보려 노력하고, 이 작은 인형이나 따뜻한 퀼트가 어떻게든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많은 이들이 그들을 진심으로 케어하고 그들의 행복과 나은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바바라 멘코스키가 만든 많은 수공예품들 중 몇가지 공예 선물들.



한 북한 어린이가 바바라가 만든 동물 인형을 들고 기뻐하며 미소 짓고 있는 모습.

바바라가 수년 간 보낸 많은 것들 중, 그녀는 CFK에게 "작은 친구들" 또는 소중한 인형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최근, 그녀는 빈티지 퀼트와 천들로 래기디 앤(미국 작가 Johnny Gruelle의 동화의 주인공) 인형들을 만들어 보내 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감사를 담아 오래된 천으로부터 수공예품을 만드는데, 이는 "오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따뜻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바라는 고백하기를, 때때로 이러한 공예품들이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북한에 필요하기는 할까, 아니 심지어는 이런 물품을 원하기는 할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그럴 때 저는 모든 우편물들 또는

하이디에게서 받은 사진들을 보거나, 그녀와 주고 받은 모든 이메일 대화들과 현재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봅니다. 그것들은 저로 하여금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다른 인형들이나 모자 또는 병어리 장갑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말은 저희 모두에게 정말처럼 들렸습니다. 때때로, 저희 역시 우리가 진실로 그곳에 어떤 차이를 만들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때때로 그 상기는 소중한 북한 어린이의 사진 한 장에서 되곤 하는데, 바바라가 만든 인형을 안고 있는 그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은 순수한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저희는 수 년 동안 CFK에 많은 수제 선물들을 보내주신 바바라와 모든 뜨개질 모임 회원 분들, 그리고 기도 모임 회원 분들께 진심과 전심을 담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선물은 받는 이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들이며 이는 또한 하나님의 눈에 귀중한 것들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동역자 하이라이트: 복음주의 동양 선교, 대표 ROALD FØRELAND

#### 복음주의 동양 선교(EOM)와 CFK의 동역

EOM과 CFK의 동역은 2011년, 저희의 임원진 중 한명인 Øyvind Dovland가 북한 내에서 사역을 하고자 하는 비전과 생각을 가진 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의 좋은 친구로부터 저희는 CFK와 하이디 린튼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CFK에 연락을 취했고 Øyvind가 평양에 있는 결핵 병원에 비닐하우스를 세워주는 일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역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의 후원자분들과 선교사 친구들은 새로운 사역에 매우 잘 응답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비닐하우스와 정수 프로젝트를 위해 모금을 시작했고, 이로써 저희의 작은 노력들이 한국의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마련 되었습니다.



2016년 홍수 재난 후 Roald Føreland가 무산 결핵 병원의 온실 관리자에게 야채 씨앗들을 주고 있는 모습.

#### 식량 재배와 정수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35,40) 라고 하신 말씀은 저희 사역의 동기와 성경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선행을 통해 맺은 우정은 적의 이미지를 부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는데, 이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뿐 아니라 특히 북한에서 더 명백했습니다.

#### 야채 종자 씨앗

또한 Øyvind는 북한에 야채 종자 씨앗들을 가져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킬로그램의 씨앗으로 10톤 이상의 순무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15년부터 몇 백 킬로그램의 채소 씨앗들을 북한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은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종자 씨앗들인데, 저희는 90%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사자들은 씨앗들을 10그램씩 작은 봉투에 담아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 포장 위에는 어떻게 씨앗들을 심고 야채를 기르는 가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습니다.

#### 자원봉사자들

여러 해 동안 EOM은 노르웨이에서부터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파송하였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사역에 참여하여 7번까지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하여 북한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크게 동기를 부여 받았으며, 이 축복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북한에 방문하였던 EOM의 수많은 봉사자들 중 몇 분의 모습.

## 북한 주민들을 위한 생일 선물

칼린과 캄린 오글은 쌍둥이 소녀들입니다. 그녀들이 9살 때, 시슬 토플 박사로부터 가장 최근 북한에 방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B형 간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섬기고 온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칼린과 캄린이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 들은 것은 아니었는데, 종종 뉴스나 수업 시간에 북한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정치적 대화들을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플 박사가 라이스빌 밸리 커뮤니티 교회에서 (그녀들의 가족이 참석하는 교회) 북한 주민들의 진짜 모습과 경험, 그리고 CFK를 통해 인도주의적 후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칼린과 캄린의 어린 마음은 그 강력한 간증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소녀들은 뭔가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칼린과 캄린이 그녀들의 10번째 생일 축하 파티 때 처음으로 받은 선물을 보여주며 기뻐하는 모습.

마침 소녀들의 10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칼린과 캄린이 라이스빌 밸리 커뮤니티 교회에서 그녀들의 생일 축하금을 시슬 토플 박사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

칼린과 캄린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모두 소녀들이 스스로 한 것인데, 생일에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는 것 대신 그들에게 CFK가 북한에서 사역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원금을 모아 주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왜 이 소녀들은 함께 자신들의 생일 축하금을 알지도 못하고 한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모두 보내기로 한 것일까요? 소녀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매우 놀랍고 신나는 선물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생일 파티 모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시 한번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은 교회 앞에 서서 \$600이 넘는 후원금을 시슬 토플 박사에게 전달하며 북한의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 두 어린 소녀들은 단지 자신들의 생일 선물을 준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보여주며 모든 세대에 영감과 격려를 주었습니다.

## 번역을 하는 따뜻한 마음

대학에서 막 졸업한 후, 유민은 한국의 의대에 입학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학 지원서 및 서류들을 학교에 제출하고 합격한 뒤, 면접을 보기 위한 한국 방문 계획이 다 세워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위한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듯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녀로 하여금 한국 대신, 노스캐롤라이나 주 블랙 마운틴으로 가게 하셨고, 2016년 1월부터 유민은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에서 인턴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하기를 사실 하나님께서 그녀를 CFK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의학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다음의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면 가겠다고 기도했습니다 - 지낼 수 있는 집, 통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 그리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 - 이것들을 정말로 다 주시면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고 CFK에서 인턴을 하겠다고 감히 엄포 아닌 엄포를 놓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말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솔직히 정말 주실 줄 몰랐습니다), 유민은 이렇게 CFK에서 여러 달 동안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으로서 그녀의 주요 업무는 CFK의 간행물들을 한국인 후원자 분들 및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도 달력, 뉴스레터, 정보 안내 책자 등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녀의 업무는 CFK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지만, 그녀는 때때로 자신이 다른 봉사자 분들에 비해서 매우 작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정수 필터 양동이에 쓰여져 있는 사용 안내서나 B형 간염 환자들을 위한 안내 책자들을 번역된 한국어(조선어)로 읽고 있다는 상상을 할 때, 그녀의 마음은 가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턴십을 마친 뒤, 기도 중에 다음 스텝에 대하여 찾고 있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의 이끄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까지 이야기를 빠르게 해 드리자면, 그녀는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과정 3년차에 있으며 B형 간염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놀라우며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여러 펩타이드 약물의 개발 및 백신 보조 약물 개발, 간세포암종 (HCC, 간암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에 관련된 여러 유전자 돌연변이 연구, 중증 간질환 발전의 기전 연구, B형 간염과 C형 간염의 동반 감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민이 CFK 직원들과 등산할 때 블랙마운틴을 내려다 보며 서 있는 모습.

연구를 하며 보낸 지난 몇 년 동안은 그녀에게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그리고 기타 여러 면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처한 많은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그녀는 CFK의 번역 업무를 담당하며 그녀의 시간을 할애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CFK의 번역 업무를 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다시 한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강한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매번 예외없이, 눈물 없이 번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CFK의 한 부분으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녀는 때때로 북한에 실제로 방문해 북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며 사역을 하시는 봉사자 분들이 부럽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그녀의 연구활동이 실제로 북한에 가 현장에서 일하는 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에게 그의 약속과 뜻을 신뢰할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를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민이 봉사하는 번역의 선물은 CFK에게 엄청난 축복이며, 그보다 더, 북한 주민들을 향한 그녀의 마음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그녀의 신실함은 저희에게 축복이며 위로입니다.



유민이 서울대학교에서 그녀의 실험실 동료들과 함께 있는 모습.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5-6



CHRISTIAN FRIENDS OF KOREA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PO Box 936 • 129 Center Avenue • Black Mountain, NC 28711

phone: (828) 669-2355 • fax: (828) 669-2357

email: cfk@cfk.org • website: www.cfk.org

Like us on Facebook (  ChristianFriendsofKorea )

Christian Friends of Korea is a tax-exempt, non-profit organization founded in 1995 to sha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rough humanitarian, educational, and religious programs. Contributions to CFK are tax-deductible to the extent allowed by law. CFK also accepts stock or in-kind donations.

Please make all checks payable to "Christian Friends of Korea" or "CFK".  
If you are interested in supporting the work of CFK or requesting information or materials, please contact us via phone or email.